

지역 주민의 범죄 위협 인식 분석에 대한 연구

- 구체적 범죄 두려움 결정요인 분석 -

류준혁, 정승민*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모형아래 범죄 두려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왔다. 하지만, 단지 몇몇 연구만이 구체적인 범죄두려움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구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반적 범죄의 두려움은 물론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3가지 모형(범죄피해 모형, 무질서 모형, 사회통합 모형)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2006년 무작위로 선정된 대구 지역의 총 1,23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한 로우지스틱 분석의 결과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 모형에서 영향력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요인들이 구체적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에서만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역시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주거 침입 절도와 강도 범죄에 대해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서 특정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요소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무질서 요인을 더 많이 인지하는 사람들이 범죄 두려움이 낮았으며, 사회적 유대를 구체적 범죄에서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범죄 두려움, 범죄피해 모형, 무질서 모형, 사회통합 모형

I. 서론

지난 50년 동안 많은 범죄학자들은 범죄두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범죄 두려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법집행 및 사법행정 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에 소속된 학자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주요범죄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미국인의 삶의 질이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현상과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노성호·김지선, 1998; Tayl

* 교신저자.

or and Hale, 1896; Warr, 2000).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며, 직접적인 범죄피해 못지않게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행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가정에만 머물게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시민들 사이의 사고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Colkin, 1975; DuBow, *et. al.*, 1979; McIntyre, 1967). 범죄 두려움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정책들이 직접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범죄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이성식, 2000a, 이성식, 2000b, 노성호·김지선, 1998; 정승민, 2007; 박정선·이성식, 2010).

하지만 최근에는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요인들이 특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각각 다른 영향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범죄 두려움의 일반적인 측정보다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Ferraro, 1995; LaGrange, *et. al.*, 1992; LaGrange and Ferraro, 1989; Warr, 1987; 박정선·이성식, 2010). 최근에 Franklin과 그의 동료들(2008)의 연구는 7개 항목의 구체적인 범죄 형태¹⁾에 대한 정서적 두려움에 대한 범죄취약 모형, 무질서모형, 사회통합모형의 영향력에 대한 다수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국내에서도 박정선·이성식(2010)의 다수준적 연구는 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폭력, 기물파괴, 주거침입, 스토킹, 그리고 주민번호도용 등의 9가지 구체적인 범죄피해 문항을 이용하여 범죄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범죄 유형의 두려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한 지수(index)를 만들어 종속변수로 측정함으로써 구체적 범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Rountree(1998) 그리고 Rountree와 Land(1996)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즉 주거 침입 절도범죄와 폭력 범죄 피해 각각의 구체적 두려움을 측정하여 개인적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을 함께 고려한 다수준적 연구를 실행하기도 하였다²⁾. 국내에서는 노성호·김지선(1998)의 연구에서 이러한 특정한 범죄의 유형별로 범죄 두려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해 특정 범죄 유형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경험적으로 접근해

1) 성범죄, 운전 중에 폭행, 노상강도, 무기에 의한 위협, 살해, 주거 침입 절도(가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분리함)등과 같은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

2) Rountree와 Land(1996)의 연구에서는 주거침입 절도 두려움의 측정으로 “자신이 집이 절도범죄를 당할까봐 최소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걱정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Rountree(1998)의 연구는 주거 침입 절도 두려움 측정으로 “자신이 집이 절도범죄를 당할까봐 최소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걱정 하는가” 라는 질문의 응답과 폭력 범죄 측정으로서 “폭력을 당할까 일주일에 최소 한번 걱정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범죄피해 모형, 무질서 모형, 사회 통합 모형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각각의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결정하는 요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가를 분석 하고자 한다.

II. 범죄 두려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관련 선행 연구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크게 3가지 모형(범죄피해 모형, 무질서 모형, 사회 통합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Taylor and Hale, 1986; Lane and Meeker, 2003; Covington and Taylor, 1991; Bennett and Flavin, 1994; Katz, *et. al.*, 2003; Gibson, *et. al.*, 2002; 박정선·이성식, 2010)³⁾. 각각의 이론적 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⁴⁾.

1. 범죄피해 모형

3) Katz와 동료들(2003), Lane 그리고 Meeker(2003)의 연구에서는 4번째 모형으로서 Subculture Diversity(하위문화 다양성) 모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형은 인종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인종간의 문화적 배경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인종간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더욱 클수록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진 모형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모형에 대한 검증이 이미 많이 이루어 졌으나 국내에서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모형의 검증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많은 외국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연구 분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익명의 심사위원은 왜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대한 모형이 일반적 범죄 두려움 모형에 사용된 모형과 같아야만 하는가 하는 심사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실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에 대한 많은 경험적인 연구는 있지만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존재 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지식 범위 안에서의 거의 모든 문헌을 조사해 보았지만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을 종속 변수로 다룬 연구는 단지 3편이 전부였다. Rountree와 Land(1996), 그리고 Rountree(1998)의 두 개 연구와 국내에서는 노성호·김지선(1996)의 연구만이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Rountree의 연구들은 구체적인 주거침입 절도에 대한 두려움이고 노성호·김지선의 연구는 완전하게 구체적 형태의 범죄는 아니지만 대인범죄와 재산범죄의 두려움으로 구분한 연구였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 역시 구체적 범죄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 모형을 제시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모형, 즉 기존의 독립 변수를 이용하였다. 즉 우리의 지식 안에서는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연구에서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사용된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범죄피해 모형은 범죄피해는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에 관련된 범죄 취약성과 범죄피해경험(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의해 결정 된다는 모형이다. 즉 범죄 피해 모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적, 생태적인 범죄 취약성에 대한 스스로의 취약성 인식에서 범죄 취약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더 많은 범죄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Bennett and Flavin, 1994; Covington and Taylor, 1991). Skogan and Maxfield(1981)에 따르면 취약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이 그것이다. 신체적 취약성은 범죄공격에 대한 노출성, 범죄에 대한 저항성 등을 나타낸다.

연령은 범죄에 대한 신체적 취약성과 이에 따르는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체적 취약성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제한되고 범죄피해로 회복하는 신체적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낮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첩하지 못하고, 젊은 범죄자들 보다 더 강하지 못하고, 시각과 청각들의 예리함 역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낮다고 스스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Skogan and Maxfield, 1981; Garofalo and Laub, 1978).

성별 역시 범죄취약성에 대한 인지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육체적 강인함에서 잠재적인 남성 범죄자들 보다 낮고,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더욱 범죄에 취약하다. 몇몇 학자들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공격성이 낮은 행위를 하도록 사회화함으로써 여성의 방어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남성보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남성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LaGrange and Ferraro, 1989; Skogan and Maxfield, 1981).

사회적 취약성은 범죄피해의 전조와 결과 모두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그들은 범죄와 무질서 수준이 모두 높은 지역에 거주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Skogan, 1990). 또한 사람들의 낮은 소득과 교육수준은 범죄에 의한 신체적 경제적 결과들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범죄피해에 자신들이 더욱 더 취약하다고 인지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보다 높은 범죄두려움을 느낄 것이다(Clementa and Klieman, 1977; Maxfield, 1987). 이러한 피의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매우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성별(Ferraro, 1995; Skogan and Maxfield, 1981), 소수민족(Covington and Taylor, 1991), 극빈자(Taylor and Covington, 1993), 저학력층(Hale, 1996; Skogan and Maxfield, 1981), 연령(Parker and Ray, 1990; Skogan and Maxfield, 1981), 미혼자들은 범죄두려움이 더 높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범죄 경험이 어떻게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Covington and Taylor, 1991). 하지만 직접적 범죄 피해가 직접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몇몇 연구자들은 강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견하였다(Bennett and Flavin, 1994; Bursik and Grasmick, 1993; Ferraro, 1995; Skogan,

1990).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매우 미약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Garofalo, 1979; Liska, *et. al.*, 1988).

범죄 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 피해의 일관되지 못한 연구 결과는 직접적인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에서 간접적인 범죄 피해로 경험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이 관점은 범죄 피해를 경험한 다른 사람(예; 친구, 이웃, 친척, 경찰)의 경험을 들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간접적 범죄 피해와 범죄 두려움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오히려 직접적인 범죄피해보다 더 강한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였다(Lewis and Salem, 1986; Skogan and Maxfield, 1981; Taylor, 1986). Hale(1996)은 직접적인 범죄 피해보다 간접적인 범죄 피해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로는 직접적인 범죄 피해 빈도에 비해 보다 주변에 친구, 친척, 이웃 등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의 간접적인 범죄 피해경험이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 무질서 모형

다양한 무질서 모형이 존재 한다(Bennett and Flavin, 1994; Taylor, 1999). 하지만 무질서 모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형태는 Wilson과 Kelling(1982)이 Atlantic Monthly에서 주장한 깨어진 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이라 할 수 있다. 이론의 핵심은 동네에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창문, 벽면의 낙서,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차 등의 물리적 무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가 지역사회 규범기준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고 건전한 삶의 질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 그 지역의 범죄발생가능성을 높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역 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질서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 지역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informal control)가 약화 되고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은 더욱더 공공장소 사용을 꺼리게 되고, 무질서 상황에 대한 간섭을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범죄에 대해 자신들이 더욱 더 취약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높을 것이다(Bennett and Falvin, 1994; Katz, *et. al.*, 2003).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범죄 두려움과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Ross and Jang, 2000, Markowitz, *et. al.*, 2001; Bennett and Falvin, 1994). 무질서의 초기 징후는 황폐화된 또는 버려진 건물들, 공공기물 파손, 낙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거리에서의 괴롭힘 또는 싸우는 행위, 청소년의 거리 배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무질서 행위는 또 다시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로 구분되기도 한다. 즉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청소년의 거리 배회, 거리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은 사회적 무질서로 분류되는 반면, 황폐화된 또는 버려진 건물들, 낙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물

리적 무질서로 분류될 수 있다(Covington and Taylor, 1991).

3. 사회 통합 모형

사회 통합 모형은 범죄 피해 모형이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개인적 심리에만 집중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등장한 모형이다(Katz, *et. al.*, 2003). 하지만 사회 통합 모형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요소에만 집중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 심리적 인식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관심 모형은 지역사회의 퇴보 또는 하락, 그리고 응집력, 결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같은 부분이 그것이다. 즉 지역사회 통합 모형은 범죄 두려움이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의 역학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Taylor and Hale, 1986).

사회 통합 요인과 범죄 또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 하며, 지역 사회의 통합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다(Bursik and Grasmick, 1993; Gibson, *et. al.*, 2002; Franklin, *et. al.*, 2008). Hunter와 Baumer(1982)는 지역사회에서 이방인을 확인하고, 지역의 일 부분으로서 느끼는 능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정서적 애착과 신뢰는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ylor, 1996). 지역 사회에서의 유대는 지역 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변수로 간주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지역 사회 유대와 범죄 두려움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유대가 높은 사회에서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Skogan and Maxfield, 1981; Taylor, Gottfredson, and Brower, 1984; Rountree and Land, 1996; Lewis and Salem, 1986). 반면에 높은 사회적 유대는 범죄피해, 간접적 범죄피해,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오히려 높인다는 연구결과 역시 발견되고 있다(Skogan 1986; Covington and Taylor, 1991). 다양한 설문문항을 한가지의 사회 통합 지수로 모형에 포함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에서는 사회 통합이 증가할수록 지역 사회에서의 위협에 지역 주민의 인식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Rountree and Land, 1996)⁵⁾.

한편 사회해체이론에 근거하여 사회해체가 심한 지역은 범죄발생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지역의 통제력 부족으로 해체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은 범죄피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Collective Efficacy Theory)이 있다(Sampson &

5) Rountree와 Land(1996)의 경우 지역 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낯선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가, 지역 사회에서 가족 또는 친구가 있는가, 이웃이 없을 때 이웃주민의 소유물을 지켜 줄 수 있는가, 서로 물건 등을 빌리는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가, 이웃주민의 문제를 도와 줄 것인가 등의 설문을 통합하여 한 가지 변수로 사회 통합을 측정하였다.

Wooldredge, 1987; Smith & Janjoura, 1989; 이성식, 2003). 집합효율성은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응집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특정의 문제들, 예를 들어 범죄예방 및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개념이다(박정선, 2003; Sampson, *et al.*, 1997).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사회적 용화가 높은 지역에서 집합효율성의 인식이 증가하여 범죄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의 지역이 잘 용화되어 있다고 느끼는 주민일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이웃을 더욱 인식하게 되어 비공식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범죄두려움의 수준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Gibson, *et al.*, 2002). 기존 연구에서도 지역 사회내 감시 및 감독이 강도와 낮은 사람들에 의한 폭력 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범죄를 통제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Bellair, 2000).

사회 해체 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둔 지역 사회의 안정성은 사회 통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안정성은 비공식적 사회 통제와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높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교류와 관여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낮은 범죄 두려움을 야기 할 수 있다. 반대로 잦은 거주이동성은 지역사회의 유대망을 약화시켜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주이동성은 지역주민간의 유대망을 형성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나, 거주안정성은 지역주민간의 유대망을 강화시켜 범죄율과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Liska, *et al.*, 1988). Sampson과 Groves(1989, 784-785)의 연구에서도 거주연한이 오래된 주민이 많은 지역일수록 주민들 간에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며,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마련하게 됨을 주장하였다.

지역사회 통합 모형을 요약하자면, 범죄두려움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및 신뢰가 약할 때, 거주 안정성이 낮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통제가 약할 때 높아진다고 주장한다(Colkin, 1975; Covington and Taylor, 1991; Garofalo and Laub, 1978; Bellair, 1997; Bursik, 1999; Markowitz, *et al.*, 2001; Sampson, *et al.*, 1997; Lewis and Salem, 1986).

III. 연구모형 및 방법

1. 연구 모형

연구의 모형은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과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종속 변수로 범죄 피해 모형, 무질서 모형, 그리고 사회통합모형이 포함하는 독립 변수를 함께 각각의 모형에 포함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는 범 죄 두려움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6년 1월에 대구 지역 143개의 행정동 중 무작위로 선정된 41개 동 단위의 지역을 선정하여, 41개 지역에서 30개 가구를 선정하여 20세 이상 가구원 중 한명을 대상으로 총 1,230가구(명)를 설문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로우지스틱 분석을 이용하였다.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기술적 분석

(1) 종속 변수

범 죄 두려움 관련 설문 조사는 일반적인 범 죄 두려움과 구체적인 범 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였다. 범 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은 ①“평소 범 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가”, ②“밤에 동네를 다니실 때 범 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범 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③“폭행을 당할까 두려운가”, ④“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두려운가”, ⑤“강도에게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여 돈(현금, 수표, 유가증권)이나 물건(귀금속, 핸드백, 가방)등을 빼앗아 갈까 두려운가”, ⑥“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와 돈이나 물건을 훔쳐 갈까 두려운가”, ⑦“집안에 도둑이 침입하여 가족을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갈까 두려운가”, ⑧“동네에서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도난당할까 두려운가” 등으로 질문하였다.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두렵다”, “매우 두렵다”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속변수로서 사용하였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이기 회귀 분석 방식을 이용하기 보다는 종속변수를 이변수로 변환하여 로우지스틱 분석 방식을 이용하였다⁶⁾. 종속 변수를 이변수로 바꾸기 위해 각각의 질문에서 “두렵다”와 “매우 두렵다”라고 답한 경우를 1로, 아닌 경우는 모두 0으로 처리하였다.

<표 1>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기술 통계

| 변수 | 변수정의와 코딩 | 기술통계 |
|----------------|--|---------------------------------|
| 평소 범죄 두려움 | 평소 범죄 두렵다 = 1 평소 범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23.5%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76.5% |
| 야간 범죄 두려움 | 야간 범죄 두렵다 = 1 야간 범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26.9%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73.1% |
| 폭행 두려움 | 폭행 범죄 두렵다 = 1 폭행 범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18.8%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81.2% |
| 주거침입 절도 두려움 | 주거침입 절도 범죄 두렵다 = 1 주거침입 절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33.1%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66.4% |
| 주거침입 강도 두려움 | 주거 침입 강도 범죄 두렵다 = 1 주거 침입 강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33.6%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66.4% |
| 절도 두려움 | 절도 범죄 두렵다 = 1 절도 범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22.3%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77.7% |
| 강도 두려움 | 강도 범죄 두렵다 = 1 강도 범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19.9%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80.1% |
| 차량 절도 두려움 | 차량절도 범죄 두렵다 = 1 차량 절도 범죄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 0 | 두렵다 15.3% 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84.7% |

범죄두려움에 관한 조사를 위해 변수들의 기술적 분석결과인 <표 1>에서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23%정도가 평소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자의 27%는 야간에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체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기술 분석에 따르면, 폭행 또는 강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20% 미만인 반면 주거 침입 절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33.1%, 그리고 주거침입 강도 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33.6%로 다른 유형의 범죄 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6) Rountree와 Land(1996)의 연구와 Rountree(1998)의 연구에서도 구체적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해 4범주형의 종속 변수를 이항 변수를 변환하여 로우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범주형 종속 변수의 분석의 위해서는 범주형 로우지스틱 분석이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로우지스틱 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이 연구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7) 이러한 기술 분석에서 특징적인 것은 응답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의 범죄는 주거 침입 강도와 주거침입 절도 범죄였다. 이러한 기술 분석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노성호·김지선(1998)의 분석 데

(2) 독립 변수

각각의 이론적 모형의 검증에 알맞은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2>에서 범죄 피해 모형의 검증의 위해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독립변수가 모형에 포함 되었다. 우선 응답자의 성별은 이항(Dummy) 변수로서 여자는 0으로 남자는 1로 정의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50대 이상은 1로 이하는 0으로 정의함으로써 50대 이상의 응답자와 미만의 응답자들 사이에 범죄 두려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을 0으로 전문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를 0으로 정의함으로써 응답자의 학력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경제적 소득이 범죄 두려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기 위해 응답자의 소득을 4가지로 분류(99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 원 이상) 다음 각각을 이항 변수로 처리한 후 최종 모형에는 99만원 미만을 제외한 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서 99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다른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이 범죄 두려움을 가질 것인가를 검증하도록 변수를 정의하였다. 범죄 피해 경험은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범죄 피해가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각각의 구체적인 범죄 피해 두려움에 범죄 피해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에 맞는 범죄 피해 경험을 모형에 포함 시켰다. 변수 정의는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혼인 상태와 역시 이항 변수로서 미혼일 경우 0으로 기혼일 경우 1로 변수정의를 하였다. 주거 형태는 자기 소유의 주택일 경우 0으로, 주거 형태가 전세, 월세, 기타일 경우 1로 처리하였다.

무질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무질서 변수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나누어 개인들의 지역무질서에 대한 인지도로 측정하였다. 물리적 무질서를 “동네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나 휴지가 아무렇게 버려져 있거나 낙서 등이 되어 있는가”,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는 채 내버려둔 빈집이나 빈터가 있는가” 등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질문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다섯 문항으로 응답하는 리커트식(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물리적 무질서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무질서는 “동네에서 불량배나 불량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말썽을 부리는가”, “동네에서 술 취한 사람이 다니는 것을 자주 보는가” 등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무질서 역시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사회적 무질서를 측정하였다⁸⁾.

지역 사회 통합 모형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유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및 애착,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티터에서도 주거 침입 강도와 절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절도 범죄에 이어 각각 3번째와 2번째로 나타났으며, 범죄의 심각성으로는 주거침입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사회적 무질서의 신뢰계수는 $\alpha=0.662$ 이며 물리적 무질서의 신뢰계수 $\alpha=0.39$ 로 물리적 무질서의 신뢰계수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정확한 이론적 검증을 위해 분리하여 모형에 포함하기로 한다.

<표 2>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기술 통계

| 변수 | 변수정의와 코딩 | 기술통계 |
|-----------------------|---|---|
| 성별 | 여자=0 남자=1 | 여자 52.6% 남자 47.4% |
| 연령 | 20대-40대 = 0 50대 이상 = 1 | 20대-40대 74% 50대 이상 26% |
| 학력 | 전문대졸 이상 = 0 중졸, 고졸 = 1 | 전문대졸 이상 59.2% 중졸, 고졸 40.2% |
| 소득 ⁹⁾ | 99만원 -199만원 = 1 99만원-199만원이 아닐 경우 0 | 29.6% |
| | 200-299만원 = 1 200-299만원이 아닐 경우 0 | 36.3% |
| | 300만 원 이상 = 1 300만 원 이상이 아닐 경우 0 | 23.7% |
| 범죄피해경험 ¹⁰⁾ | 범죄피해경험 있음 = 1 범죄피해경험 없음 = 0 | 범죄 피해경험 있음 29.9% 범죄 피해경험 없음 70.1% |
| 혼인상태 | 미혼 = 0 기혼 = 1 | 미혼 35.9% 기혼 64.1% |
| 주거형태 | 자가 = 0 월세, 전세, 기타 = 1 | 자가 62.2% 전세, 월세, 기타 37.5% |
| 물리적 무질서 | 동네가 지저분하고, 쓰레기나 휴지가 아무렇게 버려져 있거나 낙서 등이 되어 있는지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는 채 내버려둔 빈집이나 빈터가 있는지 | 평균 6.5 최소 2 최대 10 |
| 사회적 무질서 | 동네에서 불량배나 불량청소년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말썽을 부리는지 동네에서 술 취한 사람이 다니는 것을 자주 보는지 | 평균 5.89 최소 2 최대 10 |
| 거주안정기간 | 5년 이상 거주 = 1 5년 미만 거주 = 0 | 5년 미만 거주 32.7% 5년 이상 거주 67.3% |
| 유대 | 이웃 주민의 이름을 아는가 이웃간에 서로 왕래 하는가 이웃끼리 서로 돕는가 이웃끼리 물건 빌려 쓰는가 사소한 문제발생시 도움 요청 하는가 | 중간 값 0.7048 최소 -3.877 최대 2.908 |
| 애착 및 신뢰 | 도움 요청 시 이웃이 도움을 줄 것인가 이웃 주민을 신뢰 하는가 동네가 살기 좋은가 이웃 주민이 참 좋은 분인가 동네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가 | 중간 값 -.0456534 최소 -3.89377 최대 3.46766 |
| 감시감독 |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활동 할수 있는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를 담당 할수 있는가 불법적인 활동을 지적 할 수 있는가 지역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가 | 중간 값 .1236579 최소 -3.69683 최대 3.11235 |

9) 비교 소득은 모두 99만원 미만.

10) 범죄피해경험 변수는 각각의 모형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과 야간 범죄 두려움을 종속 변수로 측정 한 모형에는 일반적인 범죄 피해 경험 여부가 포함되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범죄 두려움 모형에서는 각각의 범죄 피해 경험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요인분석 중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변수들의 변량을 최대한 설명하는 최소의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회전방법은 베리맥스(Varimax)법으로 하였다.

지역유대를 측정하기 위해 “주민이나 동네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지내는가”, “주민과 서로 자주 만나고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는가”, “주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가”, “주민간에 물건을 서로 빌려 쓰는가” “사소한 문제발생시 도움 요청 하는가” 등을 질문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통합의 또 다른 측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측정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도움 요청시 이웃이 도움을 줄 것인가” “이웃 주민을 신뢰하는가” “살고 있는 곳이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가”, “동네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등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뢰 및 애착 정도를 측정하였다. 지역 사회내 감시 및 감독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범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는가”, “범죄 등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담당하거나 분담할 수 있는가”, “지역 사회 내 청소년들의 비행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거나 활동할 의지가 있는가”, “불법적인 활동을 지적 할 수 있는가”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거주 안정성은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1로, 5년 미만 거주 하였을 경우를 0으로 처리하였다.

<표 3> 사회통합 요인분석

| 변수 | 문항 | 성분 | | | 신뢰도 계수 (alpha) |
|-------------------|----------------------------|--------|--------|--------|-------------------|
| | | 1 | 2 | 3 | |
| 유대 | 이웃 주민의 이름을 아는가 | .792 | | | .847 |
| | 이웃간에 서로 왕래 하는가 | .782 | | | |
| | 이웃끼리 서로 돕는가 | .737 | | | |
| | 이웃끼리 물건 빌려 쓰는가 | .669 | | | |
| | 사소한 문제발생시 도움 요청하는가 | .665 | | | |
| 애착 및 신뢰 | 도움 요청시 이웃이 도움을 줄 것인가 | | .724 | | .764 |
| | 이웃 주민을 신뢰 하는가 | | .659 | | |
| | 동네가 살기 좋은가 | | .659 | | |
| | 이웃 주민이 참 좋은 분인가 | | .608 | | |
| | 동네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 | | .592 | | |
| 감시감독 활동 | 이웃 주민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는가 | | .578 | | .767 |
| |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는가 | | | .832 | |
|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를 담당 할 수 있는가 | | | .803 | |
| | 불법적인 활동을 지적 할 수 있는가 | | | .679 | |
| | 지역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가 | | | .580 | |
| 아이겐값(eigen value) | | 5.905 | 1.582 | 1.200 | |
| 분산 기여율(%) | | 36.904 | 9.889 | 7.499 | |
| 누적분산 기여율(%) | | 36.904 | 46.792 | 54.291 | |

<표 3>에서는 요인분석과 사용한 척도들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는 각 문항이 동일한 차원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인가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뢰계수는 0.6이 넘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데, <표 3>에서의 신뢰계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0.7 이상이므로 응답자들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신뢰성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로우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독립 변수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변수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상관관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으며, 결혼을 한 사람이 연령이 높지만, 학력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질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소득이 낮은 응답자 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물리적 무질서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피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범죄 피해 있는 응답자 보다 사회적 무질서를 더욱 더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고, 기혼자가 많지만, 학력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높고, 기혼자, 거주안정기간이 높을수록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거주 안정 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는 높다. 또한 유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지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애착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범죄 피해 경험이 적을수록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높을수록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거주안정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요인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하나의 변수와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로우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표 4>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 | 성별 | 연령 | 학력 | 99만원 미만 | 100-199만원 | 200-299만원 | 300만원 이상 | 범죄 피해 | 혼인 상태 | 물리적 무질서 | 사회적 무질서 | 거주 안정 기간 | 주거 형태 | 유대 | 애착 신뢰 | 감시 감독 |
|-----------|---------|---------|--------|---------|-----------|-----------|----------|---------|---------|---------|---------|----------|---------|------|-------|-------|
| 성별 | 1 | | | | | | | | | | | | | | | |
| 연령 | .04 | 1 | | | | | | | | | | | | | | |
| 학력 | -.088** | .425** | 1 | | | | | | | | | | | | | |
| 99만원 미만 | .034 | .031 | -.002 | 1 | | | | | | | | | | | | |
| 100-199만원 | -.072* | -.026 | .062* | -.220** | 1 | | | | | | | | | | | |
| 200-299만원 | .025 | -.042 | -.005 | -.257** | -.490** | 1 | | | | | | | | | | |
| 300만원 이상 | .024 | .054 | -.060 | -.189** | -.362** | -.421** | 1 | | | | | | | | | |
| 범죄 피해 | .026 | .011 | .032 | .01 | -.018 | -.030 | .047 | 1 | | | | | | | | |
| 혼인 상태 | -.036 | .433** | .475** | -.156** | -.081** | .103** | .082** | .027 | 1 | | | | | | | |
| 물리적 무질서 | -.02 | -.071 | -.029 | -.016 | -.024 | -.026 | .067* | -.043 | -.002 | 1 | | | | | | |
| 사회적 무질서 | .002 | -.001 | -.01 | .015 | .053 | -.042 | -.021 | -.097** | .026 | .478** | 1 | | | | | |
| 거주 안정 기간 | -.055 | .143* | .165** | -.051 | -.016 | -.001 | .055 | .033 | .104** | -.035 | .001 | 1 | | | | |
| 주거 형태 | .007 | -.166** | -.021 | .016 | .219** | .029 | -.280** | -.001 | -.059** | -.029 | -.076** | -.275** | 1 | | | |
| 유대 | -.077** | .227** | .186** | -.059* | -.076** | .095* | .015 | -.039 | .280** | -.059* | -.055 | .160** | -.115** | 1 | | |
| 애착 신뢰 | -.076** | .042 | .081** | -.055 | .00 | -.005 | .045 | -.059** | .101** | .186** | .194** | .110 | -.181** | .000 | 1 | |
| 감시 감독 | .100** | .064* | .018 | -.138** | -.002 | .038 | .057 | -.020 | .178** | -.003 | .024 | .068** | -.042 | .000 | .000 | 1 |

※ ** = p< 0.01; * = p< 0.05

2. 로우지스틱 분석

<표 5>와 <표 6>은 일반적 범죄 두려움과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 전에 다중 공정성의 문제에 대한 검증으로 VIF(Variance Influence Factor) 또는 허용수준(Tolerance)을 통한 분석 결과 다변수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다중공정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 <표 5>는 평소 범죄 두려움, 야간 범

죄 두려움, 폭행 두려움, 절도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가를 나타낸 결과이다.

우선 전체적인 모형의 적절성은 회귀분석의 유의성 분석으로 사용되는 F 검증과 유사한 Chi Square로 검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¹²⁾. 우선 예상대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범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범죄 두려움, 야간 범죄 두려움, 폭행, 절도 모형에 모두 나타나고 있다. 범죄 취약가설에 따라 여성과 같이 신체적·사회적으로 범죄 피해에 취약한 집단의 사람들이 특히 범죄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의 소득이 절도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9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 범죄, 야간 범죄, 폭행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과 학력은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 경험 역시 범죄 두려움에 매우 일관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에서 범죄 피해 경험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음이 <표 5>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거주 안정 기간이 길수록 평소 범죄 두려움, 야간 범죄 두려움, 폭행두려움이 낮게 나타났다.

<표 5> 범죄 두려움 결정 요인 분석(평소범죄, 야간범죄, 폭행, 절도 범죄 모형)

| 변수 | 평소 범죄 두려움 | | 야간 범죄 두려움 | | 폭행 두려움 | | 절도 두려움 | |
|----|---------------------|-----------------------|---------------------|--------|---------------------|--------|--------------------|--------|
| | B(S.E) | Exp(B) ¹³⁾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 성별 | -1.220*** (.160) | .295 | -1.367*** (.154) | .255 | -1.095*** (.173) | .334 | -.863*** (.162) | .422 |
| 연령 | .073 (.193) | 1.076 | -.126 (.192) | .882 | .027 (.215) | 1.027 | .213 (.203) | 1.238 |
| 학력 | -.233 (.177) | .792 | -.147 (.172) | .863 | -.100 (.194) | .905 | .023 (.186) | 1.024 |

※ *** = $p < 0.001$; ** = $p < 0.01$; * = $p < 0.05$

- 11)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독립변수가 모형 안에서 다른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의 세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VIF 가 높을 경우 다중 공정성(Multicollinearity)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ohen과 그의 동료들(2003: 424)의 경우에는 10이상이면 다중공정성의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5>와 <표 6>에 나타난 모형 모두에서 모든 독립변수의 VIF 은 4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모형 모두 다중공정성의 문제도 없다고 볼 수 있다.
- 12) Agresti와 Finlay(1997)에 따르면 Chi Square 검증은 상수만을 포함한 모형에서 모든 독립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2LogLikelihood 의 차이를 의미한다. 상수만을 포함한 모형보다 더욱 적합한 모형일 경우 $-2LL$ 은 일반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Chi Square는 이러한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 13) Exp(B)는 가능성 비율(Odds Ratio)을 의미하는 것으로 Exp(B)가 1일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음을 의미하고, 1을 넘는 경우 독립 변수가 1단위 높아질 때 종속변수가 일어날 가능성($Y=1$)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0-1 사이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부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서 독립변수가 한 단위 높아질 때 종속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범죄 두려움 결정 요인 분석(평소범죄, 야간범죄, 폭행, 절도 범죄 모형)(계속)

| 변수 | 평소 범죄 두려움 | | 야간 범죄 두려움 | | 폭행 두려움 | | 절도 두려움 | |
|--|---------------------|-----------------------|---------------------|--------|---------------------|--------|--------------------|--------|
| | B(S.E) | Exp(B) ¹⁴⁾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 100-199만원 | -.861*** (.254) | .423 | -1.160*** (.250) | .314 | -.966*** (.265) | .381 | -.491 (.278) | .612 |
| 200-299만원 | -.739** (.249) | .478 | -.827*** (.243) | .437 | -.782** (.258) | .457 | -.050 (.269) | .951 |
| 300만 원 이상 | -1.156*** (.279) | .315 | -.966*** (.265) | .381 | -1.275*** (.296) | .279 | -.307 (.294) | .735 |
| 범죄 피해 ¹⁵⁾ | .653*** (.155) | 1.921 | .430** (.151) | 1.538 | .946** (.307) | 2.574 | 1.676*** (.222) | 5.345 |
| 혼인상태 | .451* (.195) | 1.569 | .165 (.184) | 1.179 | .274 (.210) | 1.315 | .106 (.202) | 1.112 |
| 주거형태 | -.323 (.171) | .724 | -.312 (.165) | .732 | -.272 (.183) | .762 | .133 (.176) | 1.142 |
| 물리적 무질서 | -.043 (.065) | .958 | -.084 (.063) | .920 | -.132 (.071) | .876 | -.064 (.069) | .938 |
| 사회적 무질서 | -.053 (.053) | .948 | -.107* (.051) | .898 | -.071 (.058) | .931 | -.213*** (.056) | .808 |
| 거주 안정 기간 | -.516** (.163) | .597 | -.382* (.158) | .682 | -.538** (.174) | .584 | .143 (.174) | 1.154 |
| 유대 | .071 (.079) | 1.073 | -.062 (.075) | .940 | -.102 (.083) | .903 | -.150 (.081) | .861 |
| 애착 | -.054 (.076) | .947 | -.132 (.074) | .876 | -.099 (.084) | .905 | -.148 (.080) | .863 |
| 감시감독 | .029 (.075) | 1.030 | -.021 (.072) | .979 | -.025 (.081) | .976 | -.043 (.079) | .958 |
| Model Chi-Square | 111.502*** | | 136.397*** | | 95.268*** | | 141.395*** | |
| Nagelkerke R ² ¹⁶⁾ | .137 | | .160 | | .128 | | .175 | |
| N | 1164 | | 1163 | | 1155 | | 1163 | |

※ *** = p < 0.001; ** = p < 0.01; * = p < 0.05

이 모형들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기혼자 일 경우에 평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혼자 일 경우에 평소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결과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넘어 가족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결과 일 수 있다. 자기 자신 보다는 가족의 안전에 대한 이타적인 두려움을

14) Exp(B)는 가능성 비율(Odds Ratio)을 의미하는 것으로 Exp(B)가 1일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음을 의미하고, 1을 넘는 경우 독립 변수가 1단위 높아질 때 종속변수가 일어날 가능성(Y=1)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0-1 사이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부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서 독립변수가 한 단위 높아질 때 종속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15) 폭행 두려움 모형에는 폭행 피해 경험이 이항 변수로 포함되었으며, 절도 두려움 모형에서는 절도 피해 경험이 이항 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16) 로우지스틱 분석에서 회귀분석의 R²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몇 가지 분석 결과가 있다. SPSS 분석에서는 Cox & Snell의 R²와 Nagelkerke R²를 도출할 수 있지만, Cox & Snell R²의 경우 최댓값이 회귀분석의 R²과 달리 1이 아니라 .75 임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Cohe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댓값이 1로서 회귀분석의 R²와 유사한 Nagelkerke R²를 보고하기로 한다.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위환경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며(Warr, 1992; Warr and Ellison, 2000), 경험적 연구에서도 아이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Ross and Jang, 2000; Ross and Mirowsky, 2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이 높다는 점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 다른 특정적 결과로 <표 5>에서는 사회적 무질서를 많이 느낄수록 야간 범죄 두려움과 절도 범죄 두려움이 낮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이론에 역행하며, 정승민(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⁷⁾.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응답자의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표 4>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물리적 무질서, 또는 사회적 무질서를 더 많이 인식할 것인가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물리적 무질서, 또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는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객관적 무질서라고 할 수 없다. 즉 무질서에 대한 인지에 많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무질서를 많이 인지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에서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물리적 무질서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사회적 무질서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 경험이 더 낮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무질서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그리고 범죄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무질서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그리고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질서 행위에 매우 민감하고 무질서 행위 인식의 한계점이 매우 낮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주장을 Sampson and Raudenbush(2004)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Sampson and Raudenbush(2004)는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인식에서 거주자의 전 거주지의 환경적 특성이 무질서와 범죄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이전에 살았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현재 보다 나은 환경으로 이주 해온 거주자는 현재 지역사회에서의 범죄 또는 무질서의 인지에서 매우 높은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무질서와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지역에서의 어떤 행위는 보통이며 전혀 무질서라고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매우 깨끗하고, 부유한 지역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무질서 행위도 심각한 무질서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수도 있으며,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표 4>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높은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물리적 무질서를 느끼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애착과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사회의 가치에 대한 걱정과 관심 역시 높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소한 무질서 행위라도

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를 통합하여 측정한 정승민(2007)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무질서의 영향력은 경찰의 다양한 서비스 활동, 범죄 예방활동, 그리고 순찰활동을 통제할 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용납되지 않을 수 있다.

<표 6>은 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강도, 차량절도 두려움에 대한 요인 분석이다. <표 5>와 같이 성별과 거주자의 소득, 범죄 피해 요인은 대부분의 모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표 5>와 마찬가지로 우선 혼인상태일 경우에 주거 침입 절도 두려움과 주거 침입 강도 두려움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제기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넘어 가족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 특정 범죄 형태의 두려움, 즉 주거 침입 범죄의 두려움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표 5>와 <표 6>의 모든 모형을 고려하였을 때 결혼의 여부의 영향력은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에 대해 미약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거 침입 범죄이외에 다른 어떤 특정 형태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즉 결혼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폭행, 절도, 강도, 차량 절도 등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범죄 피해 위험성이 낮은 반면, 주거 침입 절도와 주거 침입 강도는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가 가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6>범죄 두려움 결정 요인 분석(강도, 주거침입, 주거침입 강도, 차량절도 포함)

| 변수 | 강도 두려움 | | 주거 침입 절도 두려움 | | 주거 침입 강도 두려움 | | 차량절도 두려움 | |
|----------------------|---------------------|--------|--------------------|--------|--------------------|--------|--------------------|--------|
|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 성별 | -1.131*** (.169) | .323 | -.712*** (.136) | .491 | -.740*** (.137) | .477 | -.242 (.173) | .785 |
| 연령 | -.033 (.206) | .968 | .005 (.172) | 1.005 | .069 (.173) | 1.071 | -.137 (.231) | .872 |
| 학력 | .093 (.188) | 1.097 | -.177 (.158) | .838 | -.313 (.161) | .731 | -.258 (.206) | .773 |
| 100-199만원 | -.699** (.268) | .497 | -.851*** (.239) | .427 | -.938*** (.244) | .391 | -.510 (.307) | .600 |
| 200-299만원 | -.720** (.266) | .487 | -.657** (.234) | .519 | -.373 (.235) | .689 | -.142 (.295) | .867 |
| 300만 원 이상 | -.849** (.292) | .428 | -.719** (.253) | .487 | -.606* (.254) | .546 | -.530 (.329) | .589 |
| 범죄 피해 ¹⁸⁾ | .593*** (.306) | 1.810 | .925*** (.183) | 2.521 | .741* (.317) | 2.099 | 1.361*** (.256) | 3.902 |
| 혼인상태 | .357 (.208) | 1.429 | .696*** (.176) | 2.006 | .617*** (.176) | 1.853 | .276 (.218) | 1.318 |
| 주거형태 | -.312 (.165) | .732 | -.025 (.152) | .975 | -.013 (.153) | .987 | .012 (.194) | 1.012 |
| 물리적 무질서 | -.023 (.070) | .977 | -.096 (.058) | .908 | -.105 (.059) | .900 | -.140 (.076) | .869 |
| 사회적 무질서 | -.256*** (.057) | .774 | -.045 (.047) | .956 | -.066 (.048) | .936 | -.008 (.062) | .993 |

※ *** = p< 0.001; ** = p< 0.01; * = p< 0.05

18) 강도 두려움 모형에는 강도 피해 경험이, 주거 침입절도 모형에는 주거침입 절도 피해 경험이, 주거 침입 강도 모형에는 주거 침입강도 피해 경험이, 차량 절도 모형에는 차량 절도 피해 경험이 각각 포함 되었다.

<표 6>범죄 두려움 결정 요인 분석(강도, 주거침입, 주거침입 강도, 차량절도 포함)(계속)

| 변수 | 강도 두려움 | | 주거 침입 절도 두려움 | | 주거 침입 강도 두려움 | | 차량절도 두려움 | |
|---------------------------|------------------|--------|-------------------|--------|--------------------|--------|-----------------|--------|
|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B(S.E) | Exp(B) |
| 거주 안정 기간 | -.083 (.175) | .920 | -.409** (.146) | .664 | -.623*** (.148) | .536 | -.004 (.189) | .996 |
| 유대 | -.186* (.081) | .831 | .110 (.070) | 1.116 | .299*** (.073) | 1.349 | -.012 (.092) | .988 |
| 애착 | -.145 (.081) | .865 | .059 (.069) | 1.060 | .135 (.070) | 1.145 | -.162 (.089) | .850 |
| 감시감독 | -.005 (.080) | .995 | -.001 (.067) | .999 | -.040 (.068) | .961 | .151 (.088) | 1.162 |
| Model Chi-Square | 99.959*** | | 97.852*** | | 129.729*** | | 48.124*** | |
| Nagelkerke R ² | .131 | | .112 | | .134 | | .071 | |
| N | 1163 | | 1160 | | 1160 | | 1162 | |

※ *** = $p < 0.001$; ** = $p < 0.01$; * = $p < 0.05$

따라서 가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거 침입 절도 또는 강도에 대한 범죄 두려움이 높아졌다고 분석될 수 있다.

<표 6>에서 사회 유대는 강도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주거침입 강도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사회 통합 이론이 예측한 것처럼 지역사회의 유대가 증가할수록 강도 범죄 두려움이 감소하였지만, 주거침입강도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가 증가할수록 주거침입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침입강도에 대한 두려움에서 높은 유대는 지역 구성원들 간의 잦은 접촉을 가져 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더 접하였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의 Villarreal과 Silva(2006)의 연구에서는 하층지역의 사회결속력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들이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간접적 범죄피해를 경험하였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유대가 특정 범죄의 두려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V. 결론

몇 가지 이론의 틀 속에서 다양한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범죄 피해 모델에서 예상한 것처럼 여성, 낮은 경제적 능력,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범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피해모델의 예상과는 달리 결혼한 사람들의 범죄 두려

움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거 침입 절도와 강도 범죄에 대해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서 특정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적인 요소가 있음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무질서 모델의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무질서를 많이 인지하는 사람들의 경우 범죄 두려움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즉 범죄 피해가 적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 일수록 사소한 무질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애착이 무질서와 비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높은 신뢰와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기대에 따른 무질서에 대한 낮은 한계점일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범죄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수준적 연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상과 달리 사회 통합 모형은 거주 안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범죄의 두려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의 유대는 강도두려움에는 긍정적 역할을, 주거침입 강도 두려움에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정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은 일반적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범죄의 두려움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존재하며, 심지어 같은 요인들일지라고 정반대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 성급하게 일반화하기 보다는 다양한 모형에 대한 반복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이론들이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노성호·김지선. 1998.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6: 169-205.
- 박정선. 이성식. 2010. 범죄 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1: 173-203.
- 박정선. 2003.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 비행: 다수준 접근의 적용. *형사정책*. 15(2) :111-154.
- 이성식. 2000a. 거주지역의 특성과 범죄두려움. *형사정책연구*. 11(1) : 117-139.
- 이성식. 2000b. 지역 사회 경찰활동과 범죄두려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 133-159.
- 이성식. 2003. 지역무질서, 지역유대와 범죄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1): 87-106.
- 정승민. 2007. 범죄두려움에 있어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4: 43-73.
- Agresti, A. and B. Finlay. 1997.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New Jersey: Prentice Hall.
- Bellair, P. E. 1997.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crime: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eighbor

- network. *Criminology*. 35(4): 677-703.
- Bellair, P. E. 2000. *Informal Surveillance and Street Crime: a complex relationship*. *Criminology*. 38: 137-169.
- Bennett, R. R. and J. M. Flavin. 1994. Determinants of Fear of Crime: The Effect of Cultural Setting. *Justice Quarterly*. 11: 357-381.
- Bursik, R. J., & Grasmick, H. 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Bursik, R. J. 1999. The Informal Control of Crime through Neighborhood Networks. *Sociological Forces*. 32(1): 85-97.
- Colklin, J. E. 1975. *The Impact of Crime*. New York: Macmillan.
- Cohen, J.,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 Sciences*. New Jersey: LEA.
- Covington, J., and Taylor, R. 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Sociological Quarterly*. 32: 231-249.
- Clmente, F and Klieman, M. B., 1977.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 Multivariate Analysis. *Social Forces*. 56: 519-531.
- DuBow, F., E, McCabe., and G, Kaplan. 1979. *Reactions to Crime: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ranklin, T. W., Franklin, C. A., and Fearn, N. E. 2008.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Disorder, and Social Integration Models of Fear of Crime. *Social Justice Research* 21: 204-221.
- Garofalo, J. and J. Laub. 1978. The Fear of Crime: Broadening Our Perspective. *Victimology*. 3: 242-253.
- Garofalo, J. 1979.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 80-97.
- Gibson, C. L., J. Zhao, N. P. Lovrich, and M. J. Gaffney.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3): 536-563.
-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 79-150.
- Harcourt, B. E. 2001. *Illusion of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nter, A., and T. L. Baumer. 1982. Street Traffic, Social Integration, and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2: 123-131.
- Katz, C. M., V. J. Webb, and T. A. Armstrong. 2003. Fear of Gangs: a Test of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Justice Quarterly*. 20(1): 95-130.
- LaGrange, R., K. F. Ferraro, and M. Supancic. 1992.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Role of Social and Physical Incivil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9: 311-34.
- LaGrange, R., and K. F. Ferraro. 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 697-720.
- Lane, J., and J. W. Meeker. 2003. Fear of Gang Crimes: A Look at Three Theoretical Models. *Law and Society Review*. 37(2): 425-456.
- Lewis, D. and G. Salem. 1986. *Fear of Crime: Incivilities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Liska, A.E., A. Sanchirico, and M.D. Reed. 1988. Fear of crime and constrained behavior. *Social Forces*. 66: 827-837.
- Markowitz, F. E., Bellair, P. E., Liska, A. E., & Liu, J. 2001.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Mode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hesion, Disorder, and Fear. *Criminology*. 39(2): 293-320.
- Maxfield, M. G. 1987. Lifestyle and Routine Activity Theories of Crime: Empirical Studies of Victimization, Delinquency, and Offender Decision-mak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 275-282.
- McIntyre, J. 1967. Public Attitudes toward Crime and Law Enforcement. *The Annals*. 374: 34-36.
- Parker, L., and M. Ray. 1990. Fear of Crime: An Assessment of Related Factors. *Sociological Spectrum*. 10: 29-40.
- Ross, C. E. and S. J. Jang, 2000. Neighborhood Disorder, Fear, and Mistrust: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Ties with Neighb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401-20.
- Ross, C. E. and J. Mirowsky. 2000. Neighborhood Disadvantage, Disorder,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258-76.
- Rountree, P. W. and K. C. Land.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 147-180.
- Rountree, P. W. 1998.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341-372.
- Sampson. R. J., S. Raun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mpson, R. J. and W. B.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 Sampson, R. J. and S. Raundenbush.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651.
- Sampson, R. J. and S. Raundenbush. 2004. Seeing Disorder: Neighborhood Stigma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Broken Window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7: 319-42.
- Sampson, R. J. and J. D. Wooldredge. 1987. Linking the Micro and Macro 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 371-393.
- Skogan, W.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Cit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kogan, W. and M. G. Maxfield.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Sage.
- Smith, D. A. and G. R. Janjoura.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 68: 621-640.
- Taylor, R. B. and M. Hale.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1): 151-189.
- Taylor, R. B. 1999. *The Incivilities Thesis: Theory, Measurement, and Policy*. in R. Langworthy. Ed. *Measuring What Matters*. 65-88.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for Justice.
- Taylor, R. B. 1996. Neighborhood Responses to Disorder and Local Attachments: The Model of Attachment, Social Disorganization, and Neighborhood Use Value. *Sociological Forum*. 11: 41-74.
- Taylor, R. B., S. D. Gottfredson, and S. Brower. 1984. Block Crime and Fear: Local Social Ties and Territori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303-331.
- Villarreal, A. and B. Silva.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3.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the Elderly More Afraid?. *Social Science Quarterly*. 65: 681-702.
- Warr, M. 1987. Fear of Victimization and Sensitivity to Ris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 29-46.
- Warr, M. 2000. Fear of Crime in the United States: Avenues for Research and Policy. I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Crime and Justice. *Criminal Justice*. 4, ed. David Duffe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Justice.

Warr, M. 1992. Altruistic Fear of Victimization in Households. *Social Science Quarterly*. 73: 723-736.

Warr, M. and C. G. Ellison. 2000. Rethinking Social Reactions to Crime: Personal and Altruistic Fear in Family Househol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 551-578.

Wilson, J. Q. and G. L. Kelling. 1982.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127: 29-38.

柳俊赫: 신시내티 주립대학교 형사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형사시스템에서의 다양한 행위 분석, 형사정책 통계 분석, 범죄원인 등이며, 최근에 연구로는 “전자감시 장치의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0)”과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 분석(2010)”등이 있다(cincinnati@cu.ac.kr).

鄭丞珉: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백석문화대 경찰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경찰 조직론, 범죄두려움 분석 등이고, 최근에 연구로는 “범죄두려움에 있어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2007).”이다(jsmpolice@hanmail.net).

투 고 일: 2011년 03월 09일

수 정 일: 2011년 03월 25일

게재확정일: 2011년 04월 07일

A Study on Crime Risk Perception Of Community Resident
–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Specific Fear of Crime –

Jun Hyuk Ryu, Seung Min Jung

For several decades, a body of literature has emerged to identify determinants of fear of crime under various models. However, few studies have explored determinants of specific fear of crime. To fill the void of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tried to test the determinants of general and specific fear of crime under three models (Victimization model, Disorder model, and Social integration model). On the basis of survey data on 1,230 randomly selected at Daegu, logistic analysis found that som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but the others are not.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in the specific fear of crime model are different in magnitude but the findings show that similar factors predictor fear of crime.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some factors only affect on the specific fear of crime. For example, married people are afraid more than not married people for a home burglary and a home. Further, this study found that, contrary to expectation, people who perceive more disorders feel less fear of crime, and social bonds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specific fear of crime.

Key words: fear of crime, victimization model, disorder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